

# How Shall We Read "The Fox"?

Park, Jeong-Gil\*

## I

D. H. Lawrence (이하 "로렌스")의 수많은 단편중에서 특히 주목의 대상이 되고있는 "The Fox"(이하 "여우")를 어떻게 볼것인가? 1921년에 나온 이 작품은 흔히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내용에서 드러나고 있는 서정적 분위기의 표현에서 오는 능숙하고도 미묘한 감정의 처리로 인해 "로렌스" 단편의 성공적인 걸작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찬사는 비판적인 논의를 제시하기 위한 서론에 불과할 뿐, 논의의 저변에는 반대의 의견도 만만찮게 제기되고 있음을 또한 흔하게 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 대한 그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무엇이며 작품의 형식과 주제를 보는 선학들의 대표적인 안목은 무엇이고 그들의 견해를 갈라놓고 있는 쟁점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렇게 끊임없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하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본론은 이러한 제 의문에 접하여 선학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먼저 그 의문에 답하고 다음으로 작품 '여우'서 내용상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몇가지 중요한 주제의 "exposition"을 따라 이에 관한 해설을 덧붙임으로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어지는 일반적인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II

Lawrence에 대한 논의의 전면에는 항상 F. R. Leavis(이하 "리비스")가 등장한다. 그는 이 이야기가 소시적 사랑에 대한 작가 자신의 관점이 전혀 무리없이 완벽하고도 명쾌하게 서술되어 있어서 그의 단편소설중에서도 예술적 가치가 드높은 작품으로 본다. 그는 특히 내용보다는 이 소설의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로렌스"가 보여주고있는 솜씨, 즉 외형적으로 드러난 그 형식상의 교묘함-formal artifice-에 찬사를 보내고 있으며 "the tale can hardly seem involved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영어과 교수(영미소설 전공)

※ 1998년 어문연구 제8권에 게재된 논문임.

in any questionable generality of intention.”<sup>1</sup>이라 말함으로써 “로렌스”의 여러 ‘tales’중에서도 매우 자연스런 이야기의 흐름을 높이싸고 있음을 본다.

다음은 이 작품의 전반에 대한 추상적인 여러분의 평가를 몇 자 간추려 본 것인데 우선 ‘리비스’의 말부터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는 이 이야기가 love-story 이긴 하지만 ‘love’, 그 자체가 주제인 단순한 사랑의 이야기만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무엇이 사랑이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가? 라는 세속적인 의문에 빠져들겠지만, 그러나 그 의문은 그가 훌륭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여우” 에서의 “로렌스”의 사랑은 ‘It is a study of “human mating”’이라는 더 할수 없는 설명으로 만족하게된다.

It is a much longer tale,,,,,,,,,,,,,Its strength lies -and it is one of the supreme things among the major tales- in the fulness, depth, and unambiguous clarity with which it presents its theme, 267-8,,,,,,,,,,,,,The tone of “The Fox” all the way through may be described as simply and overtly serious; there is in the tale no sardonic element and no irony. 271,,,,,,,,,,,,,in “The Fox” the conviction is more fully and unequivocally a study of love. For that is what “The Fox” is, even if it doesn’t answer to the ordinary notion of a love-story. It is a study of human mating; Of the attraction between a man and a woman that expresses the profound needs of each and has its meaning in a permanent union.<sup>2</sup>

위와 같은 “리비스”의 견해와는 달리 Ian Gregor는 “...fissure between the violence of the catastrophe and the events which lead up to it”<sup>3</sup>라고 말함으로써 이야기속에서 진행되는 사건과 재앙의 포악성이 매끄럽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평에 대하여 Albert J. Devlin은 Ian Gregor가 “The Fox is beset by puzzling shifts of emphasis and by radical discontinuity in the presentation of character.”<sup>4</sup>이라는 견해를 가지고 있는듯 하다는 자신의 해설을 덧붙이면서 등장인물의 성격묘사에서 보여준 일관성의 부족과 강조장면을 지나치게 옮겨 다니는, 촛점의 불필요한 잦은 이동, 이러한 것들이 가져다 주는 혼돈스러움이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상황처리를 모호(=equivocations)하게 하고 있다는 그의 주장을 대변해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전자는 ‘questionable generality of intention’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주장으로하여 내용의 흐름이 훌륭하다는 것이며, 후자의 경우는 사건의 진행과 대단원의 결말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작품의 짜임새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비평자의 입장에서 보았을때 문제가 되는 주제, 아니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주제를 어느것으로 정할 것인가에 따라 논점은 크게 바뀔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thematic issues’를 강조하려 하느냐에 따라 논리의 초점이 다를 수

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로렌스”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한 또하나의 노력으로 반드시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제나 내용에 대한 작품 해석상의 그 어떤 주장 못지않게 중요한 요소로서 작가인 “로렌스”의 신변에 관한 개인의 역사를 탐문해 보는 일이다.

특기 할 만한 일은 John Middleton Murry가 “The Fox”를 “로렌스”의 자전적인 요소와 결부시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해 들어 가기전에 목표하는 작품에 대한 작품 외적 흥미를 제공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작품의 내적 분석에서도 폭 넓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로렌스”에게 있어서 <1916-1918>은 악몽의 시기(=the years of “a veritable nightmare”)였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에 그는 ‘Cornwall’의 악몽이 그를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그의 자의식의 기저에는 방황으로부터의 자기회복이라는 신념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은 “the truly spiritual man”으로의 회귀, 그것이야 말로 자신이 상실하고 있었던 최고의 가치인 자의식(=spiritual consciousness)에 대한 드높은 자각이었다. 과연 그는 어려웠던 시대를 회고 하면서 그 당시의 일이 그의 생애를 바꿔 놓았다 -“it changed his life for ever”<sup>6</sup>라고 술회할 정도이다. 일후 그는 참담했던 이 시대를 벗어나 ‘a spiritual man’으로서 생명을 열어가는 열정의 기저를 Fantasia of the Unconscious 와 Aaron's Rod 에서 살아있는 생자의 신념과 그의 철학적 신념을 자신있게 창도해 보이고 있는데 본장에서 다루고 있는 “여우” 또한 이러한 그의 자전적 인생관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당시 “로렌스”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심신이 약해 있었으며 인간들에 대한 분노에 사로 잡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렵의 병적인 그의 이런 집착을 해소케 한 것이 “The Fox”라는 것이다.

최근에 Keith Sagar<sup>7</sup>은 악몽에 시달리면서 힘들어 하던 시기는 <1917-1924>라고 말하고 이시기를 ‘withering vision’이라하여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피력해두고 있음을 본다. 즉 그는 Murry가 말하는 것처럼 “로렌스”에게 있어서 “The Fox”<1918>이 절망으로 부터의 탈출 -“...filled with the promise of spring”-을 의미하는 희망이 아니라 “...moral and artistic uncertainty, or even perversity”라고 함으로써 도의적인 면에서 황폐화한 사람으로, 예술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감을 잃고 있으며, 심지어는 그의 심성이 도착적이기까지 하다는 진단인 것이다.그래서 그는 이 이야기를 병을 극복해 낸 일종의 ‘catharsis’로 보는 Murry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가뜩이나 내용중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이 명백하게 살인을 허여하고 있다-“...the apparent sanction of murder”-는 이유로 비판적인 입장에서 서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경험을 끊임없이 조합하여 구체화 하고 가장 새롭다고 생각되는 최선의 '아이디어'를 작품을 통해 시험하였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작품이나 인생살이의 미답지역에 적용해가는 노력을 정력적으로 펼쳐 나갔음을 인정하고 있음을 본다. -"He was continually incorporating his latest experiences and testing his latest ideas in his work, continually pushing outwards the frontiers of his life and work."<sup>8</sup>-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음을 본다. 이와 관련하여 Devlin은 그의 논저 (The 'strange and fiery' Courses of "The Fox":)에서 선학들에 의해 다방면에 걸쳐서 상호대립 되는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 이야기가 과연 예술적인 면에서 결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일관성을 지닌 작품인가?-"Can "The Fox" have artistic integrity and coherence.....?"-라며 스스로 제기한 물음에 대한 답으로 막연한 정의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렇다 "yes"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설사 여기서 그의 의견을 이의없이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의문이 해소 된 것은 아니며 유의 할 점은 소위 말하는 'artistic integrity' 또는 'artistic coherence' 의 문제는 어떤말로 정의를 내린다 해도 우리가 알고자하는 해법을 얻기에는 모자람이 많을수 밖에 없는 너무도 방대한 영역에 속하는 개념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 작품이 나오기까지의 생성과정을 돌아보기로 하자.

### III-1

그러니까 이 작품이 Women in Love의 제 일차 필본이 완성을 보았던<1916>년에서 <1921>년에 걸쳐 쓰여졌다고 할 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최초의 필본이<1818>이고 보면 그 사이에 2~3차의 필본이 준비되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은 오히려 자연스럽다 할 것이다. 더우기 여러번에 걸쳐 가필되었거나 보완된 흔적이며 완성된 필본이 최초의 그것과 사뭇 다르게 장대화 된 모습은 그가 형식과 주제를 다듬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공을 들였던가를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로렌스"가 영국을 떠난것은 1919년 11월 14일로 되어있다.-그러나 이는 확실치 않다. 다만 1919년 11월12일 London 에서 Rosalind 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Charing Cross를 떠난다(=I leave Charing Cross)라고 되어 있으며 이태리의 Turin행 열차표를 구입할 것(=I shall take a ticket to Turin).이라 하였다. 같은 해 11월 17일자로 Rosalind 에게 보내는 편지는 열차에서 쓴 것으로 "I got to Paris about 6.30 p.m. Friday evening(14 November).....Turin 8.0.

p.m.(Saturday)<sup>9</sup>라며 자신의 여정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그의 여정은 To Catherine Carswell, from Chapel Farm Cottage, Hermitage, Nr Newbury, 'Thursday' (?23 October 1919)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탈리아의 여행계획 -"My dear Catherine: I am preparing to go to Italy"-과 To Cecily Lambert Minchin, from Italy, 'Tuesday'(?18 November 1919) -"Well, I have got so far - reached Turin Saturday night- came on here Monday"<sup>10</sup>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로렌스”는 아내 ‘프리다’가 Taormina의 Villa Fontana Vecchia에 정착할 때까지 Florence, Rome, Capri, 등지와 2년여에 걸친 Sicily, Malta, Sardinia 등의 이탈리아 지방은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지역을 순회하고 있으며 “로렌스”학도들은 이때의 여행에서 얻은 갖가지 경험과 지식이 “The Fox”의 내면을 한층 더 풍요하게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A. J. Delvin 의 말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자 한다.

Lawrence's travel between 1919 and 1921 undoubtedly broadened his range of experience and heightened his normally avid response to new people and places, further enriching the personal and cultural matrix of "The Fox".<sup>11</sup>

### III-2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은 이 ‘텍스트’ text의 발생론적 ‘genetic’ 스토리 ‘story’에 유의하는 일이다. 최초에 이 ‘텍스트’의 출현이 예고된 이래 3년여에 걸쳐 이의 구성 ‘composition’이 수정 되거나 가감 되었으므로 이 시기에 “로렌스” 자신이 내심에 간직하고 이루려 했던 가치의 수준이 무엇이고 작품속에 나타난 환경이나 인물의 묘사에 대한 출전의 비밀에 대한 흥미도 관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을 것이다.

1918년 12월, Mountain Cottage, Middleton, Debyshire.에서 “로렌스”는 Katherine Mansfield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고 있다.

"... I wrote "The Fox" story -rather odd and amusing. What is your story? Perhaps I'll send both "The Fox" and the 'Education' essays to Frieda, and she'll bring them on to you. Let me see your story."<sup>12</sup>

그런데 Mountain Cottage 오기전에 그는 <12 January 1918>년 이후 Chapel Farm Cottage, Hermitage, Nr. Newbury, Berks.에서 살았다. 그는 누이 Ada 와 Midlands에서 연말<1917>을 보내면서 이곳에 올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

의 친구인 Richard Aldington에 의하면 자신은 친구인 “로렌스”가 무죄라고 믿고 있었지만 다수의 영국인들은 그가 스파이라는 점을 의심하고 있었으며 프리다의 국적, 또한 의심을 부채질하는 요인이 되었다. 그런점 등으로 인해 Scotland Yard에 대한 그의 반감은 절정에 이르러기도 하였으나, 어쨌든 “I consider Lawrence’s condition at the period in question to have been very far from normal,”이라고 Robert Nichols는 로렌스를 추억하고 있다.<sup>13</sup> 게다가 이곳도 “로렌스”에게는 쾌적한 장소는 되지 못했다. Hilda Brown Cotterell에 의하면 Hermitage의 chapel Farm Cottage에는 두채의 집이 있었는데 그중 하나에 “로렌스” 부처가 살았으며, 다른 한 집은 이따금 군인들에게 숙영지로 제공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당시 Long lane에 Misses Lambert and Monk라는 두 친구 소유의 Grimsbury Farm이 있어서 이따금 “로렌스” 부처가 이 농장에 와서 기거하기도 하였는데 겨우 새마리의 농아 먹이는 양과 몇안되는 닭을 치고 있었던 모양으로 이곳이 “The Fox”의 setting이 되었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Miss Lambert는 Hilda보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상황을 잘 정리하여 설명하고 있다.

Miss Lambert -후에 Cecily Lambert Minchin 으로 됨-와 Miss Monk는 사촌지간으로 그녀의 회고에 의하면 그들은 여자의 몸으로 양의 젖을 짜고 돼지와 닭을 사육하는 고된 농장의 노동에 필사적으로 메달렸다는 것이다. 이 농장의 저택은 본래 할아버지가 소유했던 것으로 그가 세상을 떠나자 사촌인 Violet Monk와 그녀가 이 저택에 머물게 되었다는 것으로 “로렌스”가 이곳으로 와서 많은 시간을 보내자 빅토리아조의 가치관에 익숙하였던 아버지는 그의 잦은 방문을 그리달가워 하지 않았던 터라 때로는 그를 돌려보내는 것이 그녀가 취해야 할 임무 줌으로 알았고 아버지와 “로렌스” 사이에는 보다 심한 마찰이 일곤했지만 “로렌스”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하기도 한다

이때 마침 그녀의 남동생이 병으로 아프리카 전장-the east africa war zone-에서 돌아와 양친과함께 농장에 머물고 있었으며 그가 사촌인 Miss Monk에게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였다.

나무와 관련하여 그녀는 동생이 사촌과 어울려 나무를 베어넘겼는데 자신은 그때 멀리 떨어져 있었으므로 많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고 썼다. 그리고 당시는 전신인데다 금렵기였으므로 여우가 들끓었다고 회고하고 금렵의 해제와 함께 사냥이 자유로워 그제서야 농장에 남아있는 몇 안되는 닭을 보호하려고 총을 빌려 직접 사격연습도 했으나 여우사냥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녀 자신이 Benford역의 원인제공자이고 사촌이 March역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맥락에서 볼 때 다음의 서술은 자신을 포함하여 사촌 동생인 Miss Monk에 대한



그녀의 다음과 같은 회고는 이이야기의 구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로 유의해 볼 만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My cousin was a goodlooking girl with dark wavy hair and velvety brown eyes, but an undefinable personality. As a girl her mother dressed her in striking, expensive clothes. She was very proud of her daughter's appearance and liked to show her off in public, and dressed her in unusual clothes to catch the eye, at the same time keeping her in strict sujection. The result was a strange mixture of overwhelming conceit and arrogance allied to a kind of meekness and unsureness in direct contradiction. In appearance she was very feminine except for a flat boyish figure, which was graceful, and she should have gone far with such assets to smooth the way. An unfortunate love affair had broken up her health, and before going to Farm she had suffered a severe nervous breakdown from which she never really recovered. Her whole life was spoiled by nervous troubles mostly, or I should say wholly, due to her stupid upbringing-- with proper training and less of the possessive mother business she would have gone far married well.

On the Farm she dressed in Land Girl Uniform of that date -- ,..... Occasionally she wore putties. She liked doing mannish jobs--carpentering, digging, and rough jobs generally, but loathed cooking or any housewifery tasks but was not averse to washing up. We had to make our own clothes or go without. I did the designand cutting, and she very impatiently machinrd the seams.....If by any chance visitors came, she wouldleave the entertaining entirely to me while she would go offand wash up or do jobs outside--anything to avoid the bother of talking.

There was so much to be done on the farm--milking goats, feeding and cleaning hens and pigs, etc., and cycling to local farms collecting eggs for sale in London. We also had a few friends as paying guests in the summer. Then I gave piano lessons, played for and taught dancing, helped with Greek plays, etc., .....Miss Monk did not dance and was very hazy with piano. She played only one waltz tune, and I think a barn dance.....At those times Miss Monk usually(not always)donned a frock made of greenly blue curtain-material which we had made and which suited her. Sha had always a sort of remoteness or aloofness and never mixed much with people. Sha avoided all the nasty bits of life and had little use for society.

Towards me she was possessive and jealous which caused friction, since I loved life, people, and excitement of all kinds and enjoyed having visitors.<sup>15</sup>

Cottage, Middleton-by -Wirksworth, Derby. 지방 할것없이 야생동물의 죽음하며, 영혼의 숨막힘은 여전했던 모양으로 “로렌스”는 Midlands의 검고 가파른 계곡, 아름다운 Mountain Cottage에서도 상실감에 빠져 “.....I wish we could have gone back to Cornwall.”<sup>16</sup>라며 푸념할 정도이니 그가 애써 미구에 이 고장을 떠나려 함이 예정되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고 할것이다. 과연 그는 June 1918 에 서.....“The future seems utterly impenetrable, and as fathomless as the Bottomless Pit, and about as desperate.--But no doubt the world will sail out again, out of the Maelstrom. Perhaps even now it is moving clear from the Vortex.”<sup>17</sup>라 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변상의 제 문제가 Harry T. Moore 의 1959년 A. D. H. Lawrence Miscellany에 나타난 최초의 필본인 “The Fox”와 1923년 3월의 The Captain’s Doll, The Lady Bird, 그리고 “The Fox”가 합본되어 Novella로 나온 책에서 그 내용을 보면 ‘오리지널-스토리’에 비하여 그 길이가 거의 3배나 장대화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가 출판을 위하여 “The Fox”의 마지막 필본을 완성한 때는 기록상으로 1921년 11월 Taormina, Sicily에서 였다. Villa Fontana Vecchia, Italy에서 그의 미국인 친구인 Earl Brewster (# 1)에게 부친 편지는 이에 관한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는데 답을 주고 있으며, 동년 12월 Curtis Brown (# 2)에게 보낸 편지는 “The Fox”가 최초로 출간된 서지명과 위에서 언급한 세개의 중편 소설의 모음 집에 대해서도 분명한 출전의 내력을 제시해 주고 있음을 본다.

To E. H. Brewster, from Fontana Vecchia, Taormina, 16 November 1921  
#1.

“Dear Brewster: How the is Ceylon?.....Of news there is none particular.....I have been busy getting my MSS. into order -as far as possible- so that I can clear out and be free. So I have brought the short stories up to the scarach, ready for a voume: and written a long short story.....,and put a long tail to “The Fox”, which was a bobbed short story. Now he careers with a strange and fiery brush. I hope you will read him sometime,.....”<sup>18</sup>

To Curtis Brown, from Fontana Vecchia, Taormina, 7 December 1921  
#2.

“Dear Curtis Brown: I send yiyou What MSS. are ready of the stories. The first part of “The Fox” was published in Nash’s Magazine. ‘The Captain’s Doll’s’ is quite new. I am writing a third: ‘The Ladybird’ -about the same length- 30,000 words or so. These three I want to go in one volume by themselves. I will send ‘The Lady Bird’ as soon as it is done. These I call the three novelettes.”<sup>19</sup>



위에서 필자는 이 이야기의 장대화에 대해 언급을 했다. 그러면 ‘오리지널-스토리’와 장대화 된 ‘스토리’는 어떻게 다른가? ‘오리지널-스토리’가 Henry Grenfel(이하 Henry 또는 ‘헨리’)이라는 청년의 느닷없는 결혼 제의를 Nellie March(이하 March 또는 ‘넬리마취’ 혹은 ‘마취’)가 수용하고 이를 못마땅해 하는 Jill Banford(이하 Banford 또는 ‘질벤포드’ 혹은 ‘벤포드’)가 실의에 빠진 나머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사이에 수일내에 ‘헨리’가 이고장을 떠날 것이라는 사실이 예고되는 가운데 두사람의 결혼이 사실상 성사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런데 1921년에 나온 장대화된 부분-an extended part-은 위에서 지적된 청혼의 장면에서 긴 꼬리가 붙게 된다. ‘넬리마취’가 ‘헨리’의 목소리에서 감지하고 있었던 색다른 활력에 순응하는 자세로 일관하는 것 같은 태도에서 벗어나 그에게 저항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며, 급기야는 ‘헨리’와 ‘마취’ 사이는 물론 ‘헨리’, ‘마취’, 그리고 ‘벤포드’까지도 모두들 상호 투쟁의 대열에 서게 된다. 그리고 이들의 심화된 갈등은 결국 ‘벤포드’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초래될 때 까지 더욱더 강화되고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 N-1

이제 본론의 이해를 돕기위하여, 나아가 본 저술이 의도하는 주제의 향방을 결정하는 제재의 처리과정을 설명하기 위하여 여기쯤에서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이야기의 내용을 요약하고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다: 이 소설의 ‘플롯’은 이외로 단순하다. 그러므로 소설을 전개하는 방식도 이외로 투명하다. 특히 두 처녀와의 관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질 벤포드’와 ‘넬리 마취’로 불리는 과년한 두 처녀가 공동으로 농장을 구입한다. 대주주는 ‘벤포드’로 그녀가 농장을 주로 꾸려가고 있는데 연약한 몸매에 안경까지 끼고 있는 이 처녀는 Islington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아버지가 딸의 건강을 위해서 농장을 구입하는데 드는 자금을 출자해 준 것이다. 또다른 한 처녀인 ‘마취’, 그녀는 Islington의 야간학교에서 목공일을 배운 적이 있으며 체구는 남자처럼 건장한 모습이다.

Bailey Farm(이하 ‘베일리’ 농장)이라고 부르는 이곳에는 년전만 하더라도 ‘벤포드’의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지만 지금은 두 처녀 만이 농장에 남아서 닭이며 오리를 키우고 있다. ‘벤포드’에 비해 건강하고 역센 ‘마취’는 바깥 일을 도 맡았다. 전쟁이라는 사회적 조건이 양계업에 불리한데다 가뜩이나 골치꺼리가 하나더 생긴 것이다: 여우가 나타나서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닭을 물어 가는게 아닌가. 그런 일이 있는 후로는 총을 들고 여우를 감시하는 일이 ‘마취’가 하는 일의 전부라 할 정도로 숲을 배회하면서 그녀는 여우를 몰아내는 일에 온통 넋을 놓고 있

다. 어느덧 8월이 가고 이른 오후면 바깥은 무겁고 캄캄해 지는 11월이 온 것이다. 숲을 지나칠 때면 무의식중에라도 여우를 찾게 되고, 여우에 대한 그녀의 깊은 분노는 이미 그녀의 무의식을 압도하기 시작하고 있다. 황량하기 그지없는 작은 농가를 애워싸고 있는 어둠과 냉기는 두 처녀에게도 공히 불편함과 두려움과 침울함을 한꺼번에 몰아다 주고 있는 어두운 분위기다. 그런데 하루일이 끝난 어느날 오후, 그들은 '등에 무거운 배낭을 짊어진 젊은 병사의' 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는다: 병사는 두 처녀를 세심히 보고는 '마취'를 쏘아본다. 그는 5년전 이곳에 거주했던 William Grenfel(이하 '그렌펠') 할아버지를 찾아 온 것이다. 두 처녀는 그에게 3년째 이집에서 살고 있음을 확인해 주고는 그들이 이곳에 오기전에 홀로 사셨던 할아버지가 타계한 것으로 안다는 것으로하여 두 처녀와 병사의 만남이 소개되고 있다. 그런데 스물이 채 되어 보이지않는 이 병사의 이름은 Henry(이하 Henry 또는 '헨리')였다. 그는 'Cornish' -콘웰-태생으로 할아버지를 따라 '베일리'농장에 왔으며 Canada로 도망가서는 군대에 입대하여 3-4년간 소식을 끊었다가 지금에서 나타난 것이다.

청년의 갑작스런 출현으로 인하여 남자에게 대응하는 여성다운 여성과 남성다운 여성의 조합이었던 지금까지의 상황이 두 처녀의 각기다른 행동양식으로 인하여 점차 상황이 복잡성을 띄어간다: '벤포드'가 젊은 병사의 시중을 들면서 일상적인 인간관계에 빠져있는 사이에 '마취'는 구석진 곳에서 밝은데로 나올줄 모르고 다만 청년의 목소리--간결하게 울려오는 그 '아득한 목소리'를 평상시의 자신이 아닌, 또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감지되는 청년의 음성을 들으며-- 이상한 감흥에 빠지는 것이다. 밝은 곳에 여우라고 생각되는 청년이 온 몸을 들어내 놓고 있을 때 안락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은 '마취'는 '벤포드'와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때 같으면 의식의 분열로 고민하고 있을 그녀가 지금은 '두개의 각기 다른 의식의 차원'에 빠져들어 여우의 냄새를 즐기며 저녁의 Tea-Time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젊은 병사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한 마리의 여우 그 자체이다: 그런데 '마취'에게 있어서 이런 생각은 도저히 분열될 수 없는 확고한 의식이 되고 있다.

'벤포드'가 병사를 마치 친동생 처럼 시중을 들며 행복해 하는 반면에 '마취'는 지금 자신의 실체를 어둠속에 감춘채 평상시의 자신이 아닌, 다른 차원의 의식으로 간결하게 울려오는 청년의 아득한 목소리에 취해 있는 것이다. 조금전 까지만 하여도 자기를 바라보는 청년을 싫어했던 그녀 였다. 더구나 이상하게도 그 청년 때문에 의지력을 잃는 기분을 느끼고 어깨 넘으로 그녀를 바라볼 때 그녀는 창백해 지면서 맥이 풀리는 기분을 느끼기 까지하는 이상한 감흥에 빠지지 않았던가. 그런데 그같은 제복의 병사가 일체이심의 '마취'에게서 의식의 저쪽에 있는 육구의 대상이 되다니,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밤늦게 찾아온 병사를

The Swan-백조- 라는 이웃의 여인숙으로 내 쫓을 입장에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두 처녀만이 살고 있는 이 집에- 묶어가도록 하고 싶은 '벤포드'의 은근한 동의 요청을 '마취'인들 어떻게 거절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벤포드'가 여기서 유숙해도 좋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좋다고 허락을 한 것은 '마취' 쪽 이었다. 드디어 두 여인숙에 헨리가 입성한 것이다.

두 처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 청년과의 표면적인 관계가 이러하다면 '헨리'쪽에서 본 '벤포드'와 '마취'는 어떤가? 사람을 좋아하는 '벤포드'의 '타고난 친절과 온화함'에 크게 만족해 하는 '헨리', 그리고 의식의 저쪽에서는 자신을 사로잡는 마력에 빠지고 의식의 이쪽에서는 청년에 대해서 냉담한 '마취'에게 '헨리'는 아까까지 어깨 넘으로 그녀를 바라다 보고 느꼈던 '생생하고 예민한 호기심'이 있을 뿐, 두 사람의 관계에서는 아직은 생소하고 낯선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사람을 좋아하는 '벤포드'에게 그의 태도가 바뀐것은 아니나 '마취'를 보는 청년의 감각이 차츰 표면화 되는 조짐이 뚜렷해진다. 이러한 청년의 태도는 누구에게도 내색한 바 없고 자신도 비밀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은 '마취'와 결혼하고싶다는 것으로 이러한 그의 계획은 '마취'를 자신의 지배하에 꽂꽂 묶어두려는 강화된 의지의 표상으로, 추후 그의 행동은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점차적으로 맹렬성을 더하게 된다.

'헨리'의 영혼은 '마취'를 지배하는 것이 지상의 목표이다. 그가 참아왔던 구애의 말-'저와 결혼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겁니다'-에 '마취'가 화답을 해 온 것은 한해가 지난 어느 여름날이다.그러나 그 대답도 속마음과는 다르게 마지못해 내뱉는 반응-'그래요 그대 마음 내키는 대로 하세요.-'이었다. '헨리'는 '마취'와 결혼하여 Canada로 간다는 계획이었다. '벤포드'는 '헨리'의 이런 계획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그녀는 그의 은근한 태도와 예절바른 행동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상해 있었다. '벤포드'로서는 '마취'를 '헨리'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농장의 경영에 있어서도 심각한 손실이었을 뿐만아니라 자존심에 대한 심대한 모독이었다. '벤포드'는 혹시 '헨리'가 '베일리'농장을 자기들에게서 뺏아 가 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뜻나기 청년에게 쉽게 빠져버린 '마취'의 경솔한 처사가 몹시 불쾌하다.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두 사람은 결정을 내렸으며 두사람의 결혼이 후회없는 것이기를 '벤포드'도 기원하지 않았던가. 이쯤 되고보니 '벤포드'는 '헨리'와 '마취'에게서 배은망덕의 부머랭을 절감하고 있다. 그런데 '헨리', 그는 지금 군인의 신분이다. 그가 휴가를 마치고 salisbury plain으로 귀대해 버리자 두여성의 동맹이 다시 되살아 난 것이다. 내밀한 가운데 두 사람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비밀의 끈은 읍내로 가서 약혼자 명부에 등록을 하는 것으로 인습적인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때 '헨리'와 '벤포드'사이를 갈라놓았

던 긴장감도 ‘헨리’가 ‘베일리’ 농장을 떠나감으로서 소강상태에 접어드는 듯 했다. 문제는 ‘마취’에게 있었다. 그가 떠나자 ‘마취’는 느닷없이 ‘인생에서 진실한 모든 것이 멀리 떠나버리는 것’ 같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끝없는 허무와 무상에 빠지는 것이다. ‘베일리’ 농장을 떠나온지 아흐레째 되던날 ‘헨리’는 ‘마취’로부터 편지 한통을 받는데 내용은 이런 것이었다:

즉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관계를 지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며 당신으로 하여 잠시 눈이 멀었으나 ‘벤포드’로 인해 제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생각해 보니 우리에게엔 공통점이 없기도 하지만 나는 이농장을 사랑하고 또 ‘벤포드’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쓰고는 이번일은 전적으로 나의 실수이므로 당신께 사과드리오니 내게서 관심을 지워 주십사 하는 것이었다.

‘헨리’는 일이 이렇게 된 데에는 두말할 나위없이 ‘벤포드’의 집요한 방해공작이 없었어야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있다; 그는 온전한 그의 삶을 위해서 ‘벤포드’라는 가시를 그의 영혼속에서 반드시 뽑아 내야한다고 생각했다. ‘마취’는 그에게서 운명이요 천국이라 생각해 왔던 것인데 지금은 그 운명이 지옥으로 변하여 분노와 좌절을 맛봐야 하다니...그는 ‘마취’의 장광설쯤이야 지금은 안중에도 없다. 추락 해버린 자신의 존재를 원상회복 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다짐하는 것이었다.

그가 ‘콘웰’ 출신의 대위에게서 24시간의 외출을 받아내고 60마일의 먼거리를 자전거로 달려온 것은 오직 ‘벤포드’에 대한 복수의 일념 때문이었다. 그가 ‘벤포드’를 보자마자 그의 의식은 금방 사냥꾼으로 돌변하고 만다. 말없는 가운데서 무서운 힘이 그녀를 죽이는 일에 돌입하는것이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죽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가 휘둘은 도끼자락에 잘려진 나무가 이상한 방향으로 기울어지면서 ‘벤포드’를 덮친 것이다. 그녀의 죽음이 준 충격은 ‘마취’로 하여금 그녀에게 강요된 침몰을 고분고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만들었다. 평생을 통해 무엇인가 닿으려고 하고 그래서 쫓아가던 삶에서 안녕과 행복은 커녕 끔찍한 허무의 심연만이 아득히 펼쳐져 있는 인생이라니 사랑과 행복을 위해 애를 써 봤자,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존재의 멸실만이 고작일 뿐, 자신에게 남은게 무엇인가? 자신의 독자적인 정신을 잠재우고 정력적인 의식까지도 뺏아서 아무런 저항없이 자기의 의지아래 굴복시켜 단순한 여자로 자기속에 침몰해 오기를 바라는 남자에게 내가 더 이상 기대할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마취’는 끝까지 독립적인 여인이고자 하는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지쳐 있었고 청년은 가까이 있었다. 그 청년의 품은 잠시 그녀의 쉼터가 된다. 그러나 그 쉼터는 ‘콘웰’ 서쪽의 거친 벼랑을 넘어야 하는 도정만큼이나 험난한 여정이라는 것일 뿐,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데도 없다. 게다가 그들이 괴롭도록 이곳을 떠나가버리고 싶지만 아직은 떠나가지 못하

고 있음이다. 그곳에는 그들이 원했던 그 이상의 것이 있을런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희망사항과 현실은 여전히 이를 수 없는 행복의 환상을 쫓아가는 초조와 지긋지긋한 긴장이 있을 따름이다. '저 건너는 어떨지 저로서도 알 수 없어요' 줄음에 눌러 '마취'가 뻗은 이 말에 '당장이라도 갈 수 있다면!' 하는 것이 '헨리'가 반응하는 안타까운 외침이 전부이다.

## N-2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들이 쫓아갔던 행복에의 목표에, 지금 그들은 과연 얼마나 가까이 서 있는가? 행복은 그다지 멀지않은 곳에 있는거라며 맹렬히 달려간 그들의 끝은 어디인가? 그들이 고심하며 추구했던 유보된 행복의 조건들을 어떻게 추구하면 된다고 설명이라도해 놓은 어떤 이정표라도 찾았던 말인가? 그런것은 아무데도 없지 않았던가! 그렇다, 아무도 분명한 해답을 남겨주지 않은채 거친벼랑 과 서쪽 바다의 높은 파도 그리고 머나먼 수평선만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뿐이다. 그들이 절망적으로 쏟아내고 있는 고통스런 외침의 마지막 의미,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읽을 것인가? 주목되는 부분을 몇가지 생각해 보는 것으로 물음에 답해가기로 한다.

## V

주제를 전개해 나감에 있어 주목되는 최초의 exposition은 등장 인물의 면면을 서술한 대목이다. '질 브렌포드' 와 '넬리 마취', 이들 두여인의 부자연스런 관계의 구원자로 '헨리 그렌펠'이라는 청년이 등장하는데 그는 인습적인 안목에서 보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는 두여인의 관계를 단지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그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서는 두 여인을 갈라놓고 있다. 그는 지금 군인의 신분이며 사회적 배경도 그러하거나와 교육정도도 알다. 두여인도 그와 별다른 신분 차이를 느낄 정도의 배경은 없으나 나름대로는 삶의 계획도 있고 문화적인 생활을 흉내라도 내겠다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거나와 피아노도 치면서 흔히 보는 농부가 아님을 애써 남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그런 여인네 들이다. 그리고 농장을 경영한답시고 같이 동숙하고 있는 두 여인의 성향이 '마취'가 남성적인데 반하여 '벤포드'가 여성적이라는 소설적 설명은 그 자체 부터가 이들이 정상적인 관계에 놓여 있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다.

우리는 먼저 이 작품에 나타나고 있는 모든 소설적 상황을 그려 나감에 있어서 작가가 취하고 있는 수법의 기묘함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sup>20</sup> Julian

Moynahan은 그의 논저에서 “로렌스”가 취하고 있는 다양한 수법에 유의하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그가 채택하고 있는 수법의 기묘함을 “Lawrence’s Firm Artistic Control”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로렌스”의 수법은 처음부터 마지막 까지 거의 변화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이다. 그는 때로는 이미지리 imagery의 단순한 기술을 통하여, 혹은 인간의 내심을 일상적인 대화dialogue로 표출시키는 작업이 단순 기술의 차원이 아닌 이유로 하여 그것만으로 부족하면 좀더 섬세한 상세기술을 동원 하기도 하고, 외양으로 들어나고 있는 모습looks이나 제스처gesture 이미지images 등을 나레이터 narrator의 시각에서 묘사해 나감으로써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을 이뤄 나가려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무엇이라고 꼭 집어서 말 할 수 없는 감정을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행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갖가지 비유methaphore와 상징symbol을 동원하여 의식속에 남겨놓은 분석 되지않은 심리를 파고 든다. 우리가 맨 먼저 만나게 되는 두 여인, 이 두 사람간의 불모의 관계 ‘a sterile relationship’<sup>2</sup>는 Daleski의 논저22에서도 뚜렷하다. 여우가 나타나서 닭을 물어가는 불길한 사태는 으시시한 농장의 분위기를 떠올리기에 충분하며 한사코 알을 낳지 않으려한다는 암탉의 행위는 농장의 비생산성과 앞으로 닥칠 불길한 사태의 추이를 예감하는데 충분한 실마리가 된다. 생과 사의 문제가 그러하다: 소가 새끼를 낳으려고 할 무렵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있으며, 두마리의 암소중 한 마리는 Bailey Farm에 있기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고 되어 있다. 그것은 두 처녀 가운데 어느 한 처녀의 앞으로의 행보를 예언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서술이 지극히 인위적이고 말할 수 있겠다.

두 처녀의 무미건조하고 메마른 인간관계와 농장의 비생산성 ‘unfertile and unproductive’<sup>23</sup>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표면적인 사실의 이면에는 인간의 가장 자연스런 감정, 즉 본능을 훼손한 것에 대한 비판과 함께 본능을 담고 있는 그 구체적인 실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사활을 건 전쟁이라는 가장 비참한 사건이 물고온 우울함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음을 시사 해 주고 있기도 한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Henry Grenfel이 불쑥 나타나서는 ‘마취’와 ‘벤포드’ 간의 불모의 관계를 깨드려 버리겠노라고 도전해 오는 것이다. 그는 ‘마취’를 만나게되는데 이보다 훨씬 앞서서, 마취가 경험하게되는 여우와의 긴장 국면을 보는것이 좋겠다: 사태의 출발은 어느날 저녁, 총을 들고 밖으로 나간 ‘마취’가 여우와 조우하면서 부터 여우에게서 느끼기 시작하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내심의 깊숙한 곳에서 부터 의식의 자각으로까지 차오르는 여우에 대한 매혹이다. 어떤 일인지 그녀는 여우에게 매료된 그녀의 야성이 의식보다 더 깊은 곳에서 마법처럼 솟아올라 새로운 에너지로 자신이 채워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이다. 그녀는 눈앞의 여우를 향해 방아쇠



를 당길수 없었다. 일후 그녀는 공허한 기분에 싸여 그만 여우의 보이지않는 정령에 지배를 받고 있다. 그것이 화근이라면 화근이었다.

어쨌든 그것이 그녀에게 있어서 방향의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그녀의 방향은 여우가 지배하는 의식에 순응하는 것이었다. 자기존재의 무게를 여우에게 쥐버려도 좋을만큼 그녀는 여우에게 매혹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제 어쩔수 없이 자기의 전부가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여우는 그녀에게 있어서 '생각의 반쪽'으로된 그녀의 '무의식'을 압도하고 있다. 여우가 있는 숲은 그녀에게 있어서 무의식의 본향같은 곳이다; 숲은 그녀에게 있어서 '영혼에 지울수 없는 영향'을 미치는 확립된 어떤 실체와 같다. 그녀가 무슨 일이 있을때 마다 총을 들고 밖으로 나오는 것은 그때마다 흩어지려는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가다듬어 보려는 의식적인 노력이기도 하다. 게다가 숲으로 나오면 그곳에는 자신의 부분인 여우와도 만날 수 있는 매혹의 기회도 잡을 수 있지 않는가.

자연에서 감지되는 에너지, 그녀가 꾸고 있는 꿈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징과 비유,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여우가 지배하는 의식에 순종하도록 예비된 그녀앞에 젊은 병사의 갑작스런 출현은 어떤 면으로 보나 그를 맞기위해 준비된 특이행동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에 그다지 어렵지 않다. 그래서 '마취'에게 있어서 '헨리'의 출현은 그가 맨처음 그녀가 그를 만나는 순간부터 여우-'He is "The Fox"'-로 지칭되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극적인 것은 여우에 대한 그녀의 매혹이 헨리에 대한 관심으로 그녀의 태도가 옮겨가고 있는 대목이다.

'마취'는 다만 그늘에 숨은채 있고 싶어 한다. 그런 가운데서 부드럽게 물결치는 '헨리'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헨리'가 품어내는 넘치는 혈기의 낭랑함을 느끼고 자 한다. 그녀의 감은 지금 그녀의 혼에 닿아 있다. 그녀는 '헨리'에게서 무한한 평화를 느낀다. 그녀는 '헨리'에게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마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He was identified with the fox--and he was here in full presence.....There in the shadow of her corner she gave herself up to a warm, relaxed peace, almost like sleep, accepting the spell that was on her. But she wished to remain hidden.....She could at last lapse into the odour of the fox. "The Fox"p.429

그녀는 결국 '헨리'앞에서 자신을 감추고 있는 것이다. 농장에서 줄곧 보여주었던 남성적인 역할도 포기한채 그미앞에서 저자세를 취한다. 그녀는 이제 '헨리'앞에서 순한 양이 되어있다. 그래서 위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그녀는 지금 따사로운 평화속에서 마법에 빠져있는게 아닌가? 어쨌든 이 두사람의 만남은

'sterile relationship' 에서 'normal relationship'으로의 국면전환이라는데 주목할 부분이 있다. 게다가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헨리'의 남성적인 역동성에 무게가 실려 있기도 하지만 '마취'가 노려온 수용적 태세의 준비된 열정이라는 점에서 'a new mode of life'<sup>24</sup> 새로운 삶의 양식이랄 수 있다.

'마취'가 회구하는 새로운 삶의 양식에 대한 열망은 그녀의 꿈속에서 이미 그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 그녀가 정령이 부르는 이상한 소리에 이끌려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것은 다름 아닌 여우의 우짖는 소리였다. 여우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여우를 만지려 하자, 갑자기 여우가 그녀의 손목을 물려고 한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여우가 그녀를 스치고 도망하는 터에 그녀는 화상을 입은 듯 입가에 커다란 고통을 느끼고 있다. 여우가 슷결임을 안다면 이때 이미 '마취'는 '헨리'와의 접촉을 무의식 중에 체험한 것이 된다.

'헨리'의 결의는 '마취'와 결혼 하는 것 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그가 농장에 온것은 사냥감을 얻기위한 실행의 첫 단계에 들어선 것이며, 그의 열정-a huntsman in spirit-은 다소의 반항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마취'에게서는 처음부터 틀림없는 여우 였다. 그런데 그렇게 지칭되던 그가 그의 대표적 상징물 이었던 실제의 여우를 죽이고 있다. 그 여우는 '마취'가 참아 죽일 수 없었던 여우였다. 그런데 그 여우를 '헨리'가 죽인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맨 먼저 '마취'에게 보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여우가 지닌 약탈자로서의 이미지 까지도 뺏아와 이제는 사냥꾼의 정신에다 드센 약탈자의 기능까지도 '마취'에게 과시할 수 있는 '헨리'가 된 것이다.

'헨리'의 행위는 '마취'가 염두에 두고 있었던 여우에 대한 통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사태 발전이라 할 수 있다. '헨리'가 여우를 죽임으로서 죽은 여우와 자신이 제휴하고 있는 역설의 의미를 자신의 '마취'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기회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 역설을 그가 여성을 뒤쫓는 이미지로만 남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

이쯤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 보고, 앞으로 자신이 나아갈 자리를 찾아 자신이 추구해야할 희망의 밑 그림을 그리고 싶어한다. 그는 우선 자기가 처한 현실적 불만을 정화 하려는 듯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이며, 저항정신도 또한 암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마취'와의 결혼을 반대하는 '벤포드'에 대한 저항감도 물론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그는 늘 하던 대로 총을 들고 밖으로 나온다. 통곡하는 '벤포드'의 울음 소리와 신기하도록 다정하고 부드러운 '마취'의 목소리를 번갈아 떠 울리며, 서리내린 설달밤 고요한 대기, 총총한 별 아래에서 쏘 대상을 찾아 울타리를 끼고 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사냥감을 찾아 귀를 기울이며 어둠을 뚫어가는 그가 갑자기

자신이 지금 개들에게 쫓기는 한 마리의 여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자신이 설 땅으로서의 England가 너무 좁다는 생각에 미치자 잠시 자기생각에 몰두 하는 그를 발견하게 된다.

As he stood under the oaks of the wood-edge he heard the dogs from the neighbouring cottage up to the hill yelling suddenly and startlingly, and the wakened dogs from the farms around barking answer. And suddenly, it seemed to him England was little and tight, he felt the landscape was constricted even in the dark, and that there were too many dogs in the night, making a noise like a fence of sound, like the network of English hedges netting the view. He felt the fox did't have a chance. For it must be the fox that had started all this hullabaloo. ....In the angle of the long shed, in the black dark, he crouched down. He knew the fox would be coming. It seemed to him it would be the last of the foxes in this loudly barking, thick-voiced England, tight with innumerable little houses. pp 448-9

예리하고 냉철한 호기심과 밖으로 나가서 혼자 있을 때 가장 큰 자유스러움을 느끼는 그는, 그만큼 교활하고 치밀하기가 범상치 않는 여우의 행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헨리'는 여기서 바로 "로렌스" 자신이 된다. 인습에 얽매인 이 좁은 고장인 '잉글랜드'를 벗어나 자유롭게 광활한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다. 전쟁중에 그가 당한 압박감에서 어서 풀려나고 싶은 것이다. '잉글랜드'에 대한 '헨리'의 이 같은 실망은 '마취'에 대한 그의 열정을 부추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으며, '헨리'의 열망이 강하면 강해 질 수록 '벤포드'와의 마찰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발전해 가고 있음을 본다. '벤포드'에게 있어서 '헨리'는 더 이상 예절바른 젊은이가 아니다. 그녀는 '마취'가 결혼하는 일은 어쩌면 당신보다 나에게 더 상관이 있다는 이유로 그들의 결혼에 대하여 매우 단호한 거부적 태도를 보인다. 그들은 벌써 서로 서로 원수가 되어 있었다. 게다가 '마취'의 미지근한 반응은 '벤포드'에게는 배은망덕의 부머랭이라는 커다란 아픔을 주었고, '헨리'에게는 여성끼리의 동맹으로 새삼스럽게 자신을 배척하려는 기운을 감지하는 것이다. 화가 난 청년의 망막의 초점에는 '마취'도 물론 들어 있다. 그는 '벤포드'에 대한 증오심을 늦추지 못하면서 정작 '마취'에게는 오히려 더 이끌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벤포드'는 이제 '헨리'가 계획하고 있는 복수극의 피사체가 되어있다. 청년은 사냥꾼이 여우를 노리듯 장날에 읍으로 나간 '벤포드'가 저녁나절 들판을 가로질러 집으로 오는 '작은모습'을 추적하는 가운데 그녀를 제거할 기회를 노리고 있다. '벤포드'라는 여인은 지금 그에게 있어서 몸속에 박혀 있는 가시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 가시를 제거하는 일은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삶의 의의인 동시

에 마음속의 아픈 기억을 씻어 내는데 꼭 필요한 일차적인 행동지침이라고 믿고 있다. 사실 ‘마취’가 ‘헨리’와의 결별을 생각한 것은 ‘벤포드’의 반대나 훼방 때문만은 아니었다. ‘헨리’가 그녀의 곁을 잠시 떠나게 되자, 청년에 대한 기억이 여우의 모습으로만 추억될 뿐, 모든 것을 상실해 버린 것 같은 허탈감이 그녀를 크게 자극 하였던 것이 그와 같은 결심을 내리게 된 중요한 이유의 하나가 되었던 것인데, 이러한 그녀의 허무감은 ‘헨리’가 귀대한 후에 그녀가 보낸 편지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여기서 사냥꾼에게 노출된 여우나 토끼 같은 무력한 존재처럼, ‘벤포드’를 제거 함으로써 ‘마취’를 획득하겠다는 ‘헨리’의 여과되지 못한 광기와 마주치게 된다. ‘헨리’는 왜 당사자인 ‘마취’에 대한 배신의 감정은 접어두고 ‘벤포드’의 자신에 대한 거부적 태도만을 문제삼아 그녀를 희생의 재물로 하여 ‘마취’를 획득 하겠다는 것인지?

‘헨리’의 이와같은 행동 양식이 온당한 처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정당성 여부의 논의마저도 그의 광기에 묻혀 비껴가 버렸다는 느낌이다. 벌써 부터 밑동을 짚어둔 ‘스콧트렌드 전나무’가 창고옆에 서 있고 ‘마취’로 부터 넘겨 받은 도끼로 나무를 찍어, 바야흐르 ‘벤포드’ 죽이기는 절정에 이르르고 있다. 그녀는 희생이 되었다. 그는 그녀의 죽음이 그가 살아 남기 위한 필연적인 댓가라고 믿고 있다. 그가 행사한 엄청난 폭력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는커녕, ‘마취’가 지어 보이고 있는 감각 없는 표정을 보면서 일생을 두고 차지할 그녀를 얻은 것에 만족해 하는 동물적 충동에 사로 잡혀 있다; 여우가 암담을 물어가듯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킨 것을, 그는 지금 ‘벤포드’를 제거 함으로써 ‘마취’를 구원 했다고 생각하는 역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일까? 그리하여 자신이 짚어 져야 할 죄의식 같은 것이 한결 가벼워 졌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얼음처럼 차가운 철저한 복수심은 그의 ‘마취’에 대한 맹목의 열정 탓이 아니든가? 과연 그는 ‘벤포드’의 희생이 ‘마취’를 자유스런 존재로 남게 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헨리’에게는 지금 그가 설정한 목표를 완수 했다는 자족감이 있다. 그러나 그가 타인의 진정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듯이 이번 사건으로 인한 ‘헨리’의 자족감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순전히 자기 만의 것으로 이제 다시는 그녀가 자신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벤포드’를 제거 하였다 하여 그가 ‘마취’를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냥꾼이 총으로 쏘서 사냥감을 명중 시킨 행위가 본인에게는 대단한 만족감을 주었을 지는 몰라도, 그것은 사냥감의 정신이나 영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과 무엇이 다르랴? 다만 목숨을 걸고 그녀를 원했던 자신의 목표를 이루었고, 그들이 결혼에 이를수 있다고 믿는 데서 오는 ‘헨리’의 기쁨은 비록 일방적이라 해도 참으로 큰 것이며, 이들 관계에서 볼 때 중대한 진전을 이룩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쯤에서 그들 관계의 진전을 가로 막을 수도 있는 한가지 문제를 고려할 필요를 느낀다. 그것은 그들이 합류할 수 있는 대 전제를 그들이 서로 행복하고 자유로우며, 그도 그녀도 상대를 온전하게 소유하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과연 그들이 그것을 이룰수 있는 열의를 가졌는가 하는 점이다. '마취'는 '헨리'를 통해서 그녀의 영혼이 새로운 생명으로 활기에 차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그가 요구하는 사랑의 침몰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이다. 그녀의 양면성 -But though she belonged to him, though she lived in his shadow, as if she could not be away from him, she was not happy. She did not want to leave him : and yet she did not feel free with him.- p. 475은 그녀 자신을 또한 괴롭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여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벗어나,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로 발전된 과정에서 이것은 또 무슨 난관이란 말인가? '마취'가 '헨리'와 결혼하기로 했을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니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관념을 뛰어넘는 깊은 친화감과 융화감이 내부로 부터 작용하고 있었으며, '마취'는 '헨리'로 부터 거역 할 수 없는 생명력, 생명력의 신성-the compulsion of a life-force - and of a lord of life-25 을 감지하고 있음을 본다. 사실 '헨리'가 '마취'에게 바라는 복종적인 사랑은 꽤 까다로운 조건 처럼 보인다. 그는 '마취'가 철저하게 자신에게만 사랑의 뿌리를 내려놓고 있어야 하며, 그 어떤 자극에도 사랑의 바다에서 수표면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섬세하게 흔들리며 강인한 뿌리를 자기에게만 묻어 두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의 인생이 그녀로 부터 자신에게 복종하겠다는 서약을 받아 냄으로써 그녀를 반드시 자기의 것으로 가지는 데는 성공을 보장 받았으나, 과연 그가 그녀를 완전히 소유했는지의 여부를 '헨리' 자신도 명백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마취' 또한 '헨리'와 입장이 크게 다르지 않다.

'마취'도 '헨리'가 자기를 소유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으나, 그가 그녀에게 바라는 바와는 조금은 다르다. 그녀는 자기의 사상과 인생을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서 건강과 행복의 진정한 책임도 결국 자신에게 있음을 확실히 하는, 보다 자유로운 상황에 익숙해 있다. 그런데 이런 그녀도 목표물을 쫓다가도 목표물이 다가오면 고약한 실패를 생각하는 심리적 불안이 있다. 그녀에게는 실패도 있었고 절반의 성공도 또한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흡족해 하지 못하는 심리가 만족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처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것이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책임감에 흠이 되었다. 잡힐 듯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않고, 목표물이 보인다 싶었는데 결국에는 닿지 못하고 마는 안타까운 결말, 남자와의 관계에서도 결국에

는 참담한 실패가 있을 뿐인 어리석은 노력들이 사태를 악화 시키고 점차 자신의 한계를 되돌아 보면서도 바닥모를 심연으로의 추락은 면하고 싶어한다. 남자도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혼을 하고도 그들의 영혼에 담겨 있어야 할 생명의 활기를 얻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로렌스”의 풀이 말 대로 그들의 관계에는-something was missing. p. 475-무엇인가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추구해온 행복 찾기의 역사이다.

여기서 우리는 두 남녀가 추구 하고자 하는 사랑의 의미를 아주 적절히 표현 해 주고 있는 말을 발견하게 되는 데, 이는 “로렌스”가 특히 강조 하고자 하는 그의 사적 교리에 대한 일면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아닌가 한다.

He wanted her to commit herself to him, and to put her independent spirit to sleep. He wanted to take away from her all her effort, all that seemed her very raison d'etre. He wanted to make her submit, yield, blindly pass away out of all her strenuous consciousness. He wanted to take away her consciousness, and make her just his woman. Just his woman. p 478.

즉, 남자는 여자의 독자적인 정신을 잠재우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고 있으며, 여자의 모든 노력과 존재 이유를 뺏은 다음, 그녀를 굴복시키고 그녀의 정력적인 의식을 그녀의 영혼에서 몰아냄으로써 순순히 남자에게 복종하는 단순한 여자, 그것도 순전히 남자만을 위한 자신만을 위한 여자를 원한다. 그러나 여자는 달랐다. ‘마취’는 ‘헨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강요된 요구에 지쳐있는 상태이다.

And she was so tired,,,,,She seemed to stretch her eyes wider in the obstinate effort and tension of keeping awake. She would keep awake. She would know. She would consider and judge and decide, She would have the reins of her own life between her own hands,She would be an independent woman, to the last. But she was so tired, so tired of everything. And sleep seemed near. And there was such rest in the boy. p 478.

그러니까 여자는 온힘을 다하여 고집스럽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고 있다. 끈질기게 자신을 추스리며 실처럼 가늘게 남아있는 의식을 놓지 않으려고 애 쓰고 있다. 의식의 꺼짐은 곧 바로 자아의 추락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사실에 충실하다. 그녀는 아무리 희미한 의식이라도 그것을 놓치지 않음으로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된다고 확신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에게 남아있는 희미한 의식의 끈을 통해서라도 모질게 자신의 생명력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



다. 생명력이 가늘게라도 유지되는 한 언젠가는 깨어있는 활기찬 자아로 되돌아올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믿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에 만족할 만한 활기찬 생명력을 얻어내지 못했다고 해서 생명과도 같은 자아의 자존의식을 남에게 넘겨주고 이제 그만 자신을 포기해 버릴 수 없다는 것이 그녀의 신념인 것이다.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긴장된 대결 구도가 두사람의 관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덜렘머’이다. 그런데 그녀도 이제는 그만 남자에게로 가서, 거기서 휴식을 얻었으면 하고, 잠시 갈등하는 유약한 내면을 비춰 보이고 있는 대목이 있다. 그렇게 되는 경우 그녀는 ‘헨리’에게 자신의 영혼에 대한 책임까지도 신탁하는 것이 되고, 자신의 삶도 얻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그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것이다.

‘헨리’로서는 그점이 안타까운 것이다. 그는 ‘마취’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곧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어서 초조한 것이다. 그녀가 굴복하여 자신에게로 오기만 하면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그녀의 삶을, 그리고 그는 남성으로서의 그의 삶을 살아갈 테고, 따라서 둘 사이의 이러한 긴장도 없을 것이라는 것이 ‘헨리’의 생각이다.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행복해 오기를 바라는 지루한 기다림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두 사람의 앞이 보이지 않는 관계는 지금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콘웰’ 서쪽 해안의 높고 거친 벼랑 만큼이나 아득히 떨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들은 절망은 할 지언정 죽음에 이르도록 까지 자기의 삶을 성급히 포기하려 들지 않는다. 그들은 이제 현실을 뛰어 넘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러나 정신이 깨어 있는 한은 자기의 앞길에 놓여 있을 것 임에 틀림없는 어떤 희망을 생각한다. 그녀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서쪽 저 멀리 Canada와 America를 바라 본다. 그곳이 알고 싶고, 보고 싶다는 남자는 Canada로 가기만 하면 고집으로 버티던 그녀가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자신하고 있다.

## VI

현실과 희망이 교차하는 이토록 지리한 싸움에서 여자는 남자의 화신이었던 아름다운 숫여우가 죽었을 때 ‘헨리’라는 영혼의 실체를, 자신의 영혼과 함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던 일체이심의 존재와는 사실상 결별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그녀 옆에 남아있는 ‘헨리’라는 실존은 영혼의 시각으로 그를 보려하는 ‘마취’에게는 결코 잡히지 않는 존재인 것이다. 그는 이 땅에서는 이미 죽은자나 다른 없는 존재가 아니던가? 그러기에 그녀에게도 England는 희망이 없는 땅이 된 것이다. 그런 그가 이 해변을 떠나고자함은 곧 자신의 재생을 꾀하고자 함이며, 서

쪽으로의 탈출은 그녀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면 의미없는 헛수고일 따름인 것이다. 그런 이유로 남자는 더더욱 '잉글랜드'에 남아 있고 싶지않은 것이다. 대서양 넘어로의 탈출, 그것은 인생의 여정을 같이할 '마취'와의 재생을 모색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새 희망의 탐색인 것이다. '헨리', 그는 당시의 "로렌스"였다. 그리고 '마취', 그녀는 성을 통한 영혼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로렌스"의 사적교리를 창도해 나간 "로렌스"의 대변자역을 맡은 여인의 한 전형이었다 할 것이다.

## Reference

1. F.R. Leavis, D.H. Lawrence/Novelist (A Peregrine Book, 1964) p. 277
2. Ibid ① p. 272
3. "The Fox : a Caveat" , Essay in Criticism, 1x, (1959) p. 17
4. The 'Strange and Fiery' Course of "The Fox" in The Spirit of D.H.L. The MACMillan Press LTD. (1988) p. 75
5. Son of Woman, The Story of D.H.L London Jonathan Cape, (1931) p. 123
6. Ibid ⑤ p. 130
7. The Art of D.H.L.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p. 116-117
8. Ibid ⑦ p. 130
9. D.H. Lawrence: a Composite Biography, ed. Edward Nehls(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58) vol. 2\* pp. 7-81
10. Harry T. Moore,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Heinemann: London 1962) vol.1, p. 597
11. Ibid, Delvin. ④ p. 78
12. Harry T. Moore,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vol.1 (William Heinemann Ltd: London, 1962) p. 568
13. See Nehls,vol. 2, pp. 449-451
14. See Nehls,vol. 2, p. 455
15. See Nehls,vol. 2, pp. 463-467
16. See Nehls,vol. 2, p. 468
17. See Nehls,vol. 2, p. 469
18. The Collected Letters of D.H. Lawrence, ed. Harry T. Moore (Heinemann: London, 1962) pp. 677-678
19. Ibid. ed, Harry T. Moore (Heinemann: London, 1962) p. 680

20. Julian Moynahan, *The Deed of Life*, Princeton Univ. Press, (1963) p. 204
21. *Ibid* 5, p. 197
22. D.H. Lawrence : *A Critical Study of the Major Novels and Other Writings* ed. by A. H. Gomme, The Harvest Press. Sussex(1978) p. 151
23. *Ibid* 5, p. 197
24. *Ibid* 7, p. 152
25. *Ibid* 7, p. 155

※ 본 연구를 위하여 사용한 "The Fox"의 Text는 "A D.H. Lawrence Miscellany", ed. by Harry T. Moore 1959. 에 의한 것으로 page만을 인용문 말미에 적었다.



## ■ Abstract

## How Shall We Read "The Fox"?

Jeong-Gil, Park

This essay is prepared and designed as a series of lectures to students who want to or, hope to achieve a deep understanding of the English-American short story.

To say a word with respect to this article, Superficially this story has a triangular love problem but this love affair has no easy and simple plot composite to make a full understanding attainable just as the foregone conclusion describes. Its images of life's essentials agrees at no whole point of the plot development, because where Lawrence tests the underlying motives of his private religion, and it is paradoxically aligned with the fox he kills in the story. "The Fox" is known as one of 'the most translucent of Lawrence's tales'. But It goes deeper than conventional ideas of love, and at the extended part of it, the story 7 suddenly becomes muddied with obsessive matter: Henry refuses to accept March's withdrawal from her promise to marry him, goes back to the farm to claim her and chops down a tree which falls on and kills his rival, Banford.

Why does Henry challenge the two women's personal connection? Why is March altogether divided between death and life when she sees Henry? And why are Banford and Henry represent two different forms will? In answering these questions it is essential to observe the following elements in this story: the story's setting, it's modes of characterization, its central symbols and events which give full understanding to the reader. In doing so, the leaner will be able to achieve a fuller understanding of why each mode is adopted.